

# 조선불화 특별전... 최고의 회화성



사람은 기도와 수행을 위한 공간이다. 그래서 사찰의 참배객들은 대웅전을 비롯한 각 전각들에 들어가서는 불상을 향해 기도나 절, 참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보통 사찰에 가면 각 전각 안에 있는 불상은 눈이 많이 머물지만 불화는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 여래·보살탱화 등 23점 선비 소박·정교·은은한 기풍

△조선시대 '수월관음도' 중 수직으로 걸리는 '외경동월수월관음도'

## 8월 30일까지 한국불교미술박물관서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 불화를 한 자리에 모아 8월 30일까지 전시하고 있는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의 '제1회 조선불화특별전'은 불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됐던 고려시대 불화와는 달리 역불 상황의 조선시대 불화는 소박하고 정교하면서 은은하고 잔잔한 기풍을 띤다. 이번 전시에서는 '금선묘아미타삼존도', '석가모니후불탱화' 등의 여래탱화와 '외경동월수월관음도', '지장사왕도' 등의 보살탱화, '영장사제석도', '산신도' 등 총 23점을 선보이고 있다. 이중 의결이 그린 '외경동월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 때 많이 제작된 '수월관음도'의 도상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밝고 선명한 색채와 우아하고 세련된 조선시대 특유의 불화

기법으로 표현해 수월관음도 중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98년에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기념으로 전시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기도 했다. 문명대 교수(동국대 미술학과)는 "조선시대 불화는 고려시대 불화와는 달리 세계 최고의 회화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라며 "조선시대에 대형 괘불화와 대형 후불 탱화가 보편화 된 것과 색채가 다종다양해진 불화기법 등은 세계 어느나라의 회화보다도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불교미술박물관 홍보담당 권형돈씨는 "뷰티풀을 연발하며 좋아하는 외국인 관람객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월드컵 열기 때문에 국내 일반 관람객들은 다소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동국대와 동방불교대학 등 불교교육기관의 단체관람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02766-6000

문화 담당=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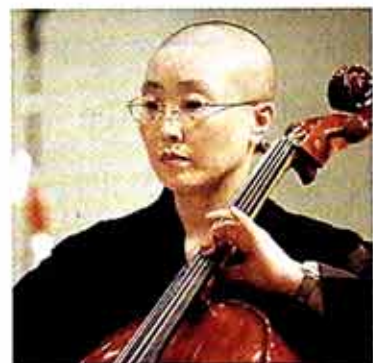
김훈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월드컵 8강전인 한국과 스페인의 시합이 열리기 전 날이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스페인에서 살아보았으니 양쪽을 다 알 것이므로, 누가 이길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것이다. 별 생각은 사람도 다 있다고 하면서, 나는 "골 많이 넣는 쪽이 이긴다"고 대답하고 같이 웃었다. 친구도 이제는 이기거나 지나 상관없이 만족스러우니, 느긋하게 경기를 즐기라고 회답했다. 그리고 보니 친구의 목소리도 좀 선 것 같고, 내 목소리도 칼칼한 게 정상이 아니다. 예선전까지는 집에서 편안히 보다가, 대 이탈리아 16강전 때는 김거리 응원역의 역사적 현장을 놓치기 아까워서 거리로 나왔다. 망설였던 붉은 티셔츠도 하나 사 입고 광화문으로 나갔지만,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변변한 자리를 얻기 어려웠다. 마침 인사동에 있는 어느 공연장에서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 그리로 갔다. 눈 앞 가득 커다란 화면에는 푸른 잔디를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이 경쾌하고, 스피커에서는 응원가가 우렁차게 흘러 나왔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대-한민국'을 따라 외치고 박수를 쳤다. 우리가 먼저 골을 먹고 초조하게 지켜보는데, 드디어 후반 막판에 기적처럼 동점골이 터졌다. 그리고 연장전 후반에 터진 골든 골! 모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활짝 팔짝 뛰었다. 종로 쪽으로 나오니까, 광화문에 있던 사람들이 밀려와 그 넓은 거리가 온통 붉은 물결로 넘실댔다. 가만히 서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희에 넘쳐 춤을 추는 가운데, 거리의 축제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 히딩크와 자기개발

### 우리속에 무한한 능력 스스로 히딩크가 돼 잠재된 소질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은 각자 몫

나는 우리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는 순간, 좀 엉뚱한지는 몰라도, "우리는 본래 부처이다"는 회담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럽 팀과 맞붙어 숨겨져 패배했지만, 우리의 본질 자체가 모자랐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에게 본능적인 소질(佛性)이 숨어있었고, 좋은 감독을 만나 확실한 실력을 쌓아 올리고 국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받는 성숙한 인연을 맞아 그 씨앗이 찬란히 꽃핀 것이다. 기쁜 일은 그 역사적 순간이 바로 지금 일어났고, 우리 모두가 당연한 주인공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이 거대한 축제의 한복판에 외국인 감독 히딩크가 있다는 사실은 재미있다. 말하지만 그는 한국 축구의 선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년 속에 잠재해있는 소질을 살릴 수 있는가 하는 전범을 보여주었다. 그 전범은 축구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하나의 물결이 일지 수만의 물결이 뒤따르는 것(一波萬瀾처럼, 마치 동산 위에 둥근 달이 떠오르듯 수천의 강물마다 달의 도장이 찍히는 것(印印千江처럼, 히딩크식 지도방법은 우리 사회의 각 방면에 응용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할 것이다. 한국축구는 우리 속에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가꾸면 반드시 꽃핀다는 것도 증명했다. 이제 스스로 히딩크가 되어 자신 속에 잠재된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은학평인가



## 이웃 위한 소리공양 무대

### 7월 5일 '더불어 사는 음악회'

연하는 가수 유열씨가 법현 스님의 첼로 반주에 맞춰 뮤지컬곡인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부른다. 음악포교의 무대인 만큼 찬불가 순서도 마련된다. 불자 가수 임부희씨가 '내마음 보살되어'와 '님아'를 음성공양한다. 가야금연주가 정애순씨가 연주하는 '전설'과 '침향무'도 이번 음악회의 흥을 한껏 돋워줄 감칠맛 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현 스님은 "음악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실천의지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모든 대중들이 따라 부르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소리공양 무대가 될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또 스님은 "재소자 포교를 위해서 여주교도소 내에 합창단을 만들어 한 달에 두 번씩 연습하고 있다"며 "11월에는 재소자들을 위한 음악회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2581-5404



△동서양 음악의 영역을 넘나들며 활발한 음악 포교를 하고 있는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연주 모습.

## 월드컵 출전국 민속음악 연주

### 니르바나 실내악단 정기연주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모두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들이다. 니르바나 실내악단이 한·일 월드컵을 맞아 26일 오후 6시30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세계민속음악을 연주하는 '제5회 정기연주회'를 마련한다. 슈베르트의 3개 독일춤곡을 비롯해 레스피기의 조곡 '이탈리아나와 사십년'이나, 피아콜라리의 탱고, 김대성의 '길노래'에 이르기까지 월드컵 출전국들의 민속음악을 들려준다. 특히 지난해 KBS교향악단 주최 국악관현악 작곡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곡가 김대성의 '길노래'는 한국의 전통 사물놀이를 현악기로 표현한 창작곡이다.

이외에도 월드컵 출전국은 아니지만 루마니아나 그리스, 오스트리아의 민속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 비르복의 루마니아 민속음악, 스키타르스의 세 개의 그리스 춤곡, 슈트라우스의 피치카토 폴카 등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들으면 어깨춤이 절로 나는 신나는 춤곡들도 레퍼토리에 들어있다. 지휘는 메카도니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 안드레이 안드리예프가 맡는다. 강령진 단장은 "올해의 정기연주회에서는 월드컵을 기념해 세계의 민속음악을 소개하는 무대를 마련했다"며 "각 나라의 전통이 담겨있는 민속음악의 진수를 펼쳐 보여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02541-6234

## 문화소식

### 상하이 국제영화제서 영화 '동승' 각본상 수상

영화 '동승'이 16일 끝난 제6회 상하이국제영화제에서 후주의 '볼렛'과 함께 각본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번에 각본상을 수상한 주경중 감독은 91년 광주민주화운동상을 소재로 한 영화 '부활의 노래'를 제작한 데 이어 95년 호주 국립영화제작소 객원감독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또 9월에 개봉될 영화 '동승'은 21~30일 열릴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고 있는 주경중감독. 모스크바 영화제와 8월 말 개막될 몬트리올 영화제에도 초청됐다. 우리나라 영화가 상하이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서편제'로 감독상임권택과 여우주연상(오정혜)을 차지한 93년 제1회 이후 처음이다.

# '조상령 및 유산아천도 49재 지장기도 법회'

한국의 대표적인 '지장기도 도량'으로 보개산 심원사를 꼽는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심원사에 모신 지장보살 불상은 생(生) 지장보살이시며, 둘째, 석불로된 지장보살님이 계신 국내 유일인 도량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개산 심원사가 백중을 맞아 '조상령 및 유산아천도 49재 지장기도 법회'를 대대적으로 엽니다. 영가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영가 천도에 대해 무심하게 지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천도 받기를 원하는 무수한 영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아갈 길을 몰라 굶주림과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가의 장애는 뜻밖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가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애는 애대로 쓰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영가는 추방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구제를 해주어야 할 또 하나의 중생입니다. 오히려 장애를 심하게 일으키는 영가일수록 안착해야 할 세계로 가지 못하는 불쌍한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재는 말 뜻 그대로 영가들이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잘 인도하는 여법한 의식인 것입니다. 특히 유산아 천도의 기본자세는 참회입니다. 정성껏 참회하는 시간이 쌓이면 모든 원결은 저절로 녹아 풀려지고 제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조상 대대의 축원 속에 태어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무한한 축원과 정성을 다 바쳤던 선대의 영가들과 세상의 빛도 못본 유산아 천도 지장기도에 동참해서 서 기도 성취하시고, 무량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입재 : 2002년 6월 30일(음력 5월20일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초재 : 2002년 7월 7일(음 5/27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2재 : 2002년 7월 14일(음 6/ 5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3재 : 2002년 7월 21일(음 6/12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4재 : 2002년 7월 28일(음 6/19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5재 : 2002년 8월 4일(음 6/26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6재 : 2002년 8월 11일(음 7/ 3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회향 : 2002년 8월 18일(음력 7월10일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백중법회 : 8월23일(음력 7월15일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 ※ 철야정진기도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 버 스 운 행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와 일요일 오전 7시에 조계사 앞에서 심원사행 버스가 출발합니다. (예약 문의 018-357-4400)
- ※ 대중교통 안내 : 수유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심원사행 버스가 수시로 있습니다. (심원사 총무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성노 1리 72-1 033)455-3468

## 심원사 양행 實話 1

### "생불 지장보살"

심원사 지장보살님께서 살아 하고 짝짝 놀랐습니다. 형제 계시는 생불임은 <심원사 사>가 역사적 사실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82년전인 720년 어느날, 이순석 제는 크게 깨닫고 "대 이순애 형제 사냥꾼 성이시여 저희, 잘못을 깨우치려 몸가 위치한 보개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를 발견하고 화살로 쏘아 맞춥니다. 멧돼지는 죽지 않고 피를 흘리며 달아나다가 환희봉 아래에서 순간 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멧돼지로 화현하셨던 그 우물쭈음의 석불이 바로 현재 심원사에 봉안되어 계신 생(生) 지장보살이십니다.



국내 유일인 생(生) 불이신 심원사 지장보살님